

창고천 마애명

유배인 임관주는 창고천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 소회를 시로 짓고 창고천 암벽에 새겼다. 그가 남긴 글씨는 오랜 세월에도 희미해졌지만, 그의 시는 오랜 시간을 거슬러 그 때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감천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481-8 ~ 안덕면 감산리 342-1(약 2.4km)

창천중앙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459-6 ~ 안덕면 창천리 7-1(약 0.7km)

상창중로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298 ~ 안덕면 상창리 1903-3(약 2.2km)

감산로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54-5 ~ 안덕면 상창리 2444-1(약 0.4km)

서안골로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488-3 ~ 안덕면 감산리 1775-1(약 1.1km)

서정문로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18-4 ~ 안덕면 화순리 66-1(약 1.2km)

존제로 | 서귀포시 상예동 4628-4 ~ 서귀포시 상예동 4454-3(약 0.7km)

가가로 | 서귀포시 상예동 4628-7 ~ 서귀포시 상예동 4068-1(약 2.5km)



창고천

감천로 | 창고천 마애명

감산리와 창천리를 연결하는 길인 **감천로**는 창고천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다. 한라산 남서쪽에서 발원한 창고천은 중산간 마을을 거쳐 안덕면의 여러 마을을 관통한다. 이 길에서는 창고천이 보여주는 계곡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창고천 주변은 예로부터 많은 물이 솟아나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여러 선비들이나 유배인들이 이곳을 찾았다. 유배인 중에는 창천 지역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사람

들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권진웅과 임관주, 임징하를 들 수 있다. 이 세 명은 모두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다 제주에 유배된 인물들이다.

권진웅은 자신의 유배지를 창주정사라 이름을 짓고 제주의 유생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훗날 제주에 유배를 온 김정희는 자신의 유배지인 대정에서 좋은 물을 얻기가 힘들자 물이 좋은 곳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권진웅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또 다른 유배인인 임징하는 그의 할아버지가 제주목사를 지내며 선정을 베푼 덕분에 제주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임징하는 제주에 함께 유배와 있던 김춘택과 교류를 하며 지내기도 했다. 훗날 그의 후손이 제주목사로 부임을 해서 그의 유배지에 유허비를 세웠다. 현재 이 비석은 감산리 복지회관으로 옮겨져 있다. 임관주는 제주에서의 두 달 간의 유배가 끝난 후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창고천과 한라산, 용연, 천지연 등 제주의 아름다운 곳곳을 찾아다니며 절경을 즐겼다. 그리고 그 때의 감정을 시로 지어 암벽에 새겼다. 창고천의 암벽에도 그의 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애명의 흔적은 많이 지워졌지만 오늘날에도 창고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창천중앙로/상창중로 | 창천리와 상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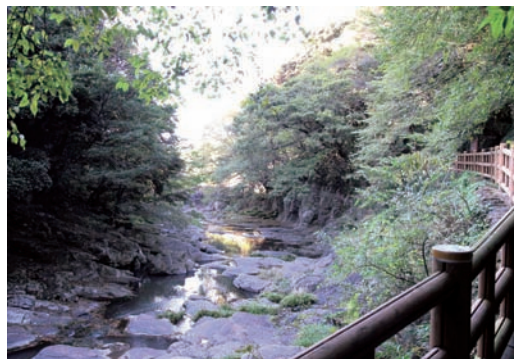
창천중앙로는 창천초등학교와 창천리 마을회관을 지나는 창천리의 중심 도로이다. 과거에는 창고천이 지나는 마을이어서 창고촌, 창고천촌이라고 불리다가 창천리(倉川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창천리의 설촌과 관련해서는 강위빙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풍수지리를 잘 아는 소 목사가 순력을 하는데 이 지역에 이르러 강위빙이 영접을 하게 되었다. 목사가 그를 보니 인품은 아주 훌륭한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 살림살

이가 매우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다. 목사는 도와줄 요량으로 강위빙에게 창천리의 좋은 명당자리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이주해 살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면 서 마당에 있는 반석은 집이 완성될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강위빙은 목사의 말을 믿고 이주를 위해 집을 짓는데 목사가 말한 반석 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소변이 급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주인의 행동을 궁금해 하던 하인이 그 돌을 슬쩍 뒤집었다가 개미들만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다시 원상태로 해놓았다. 강위빙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이 완성되자 목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잤다. 목사는 그를 만나자마자 반석을 열어보는 바람에 말 천 마리 소 천 마리를 놓쳐버렸다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

창천리의 북쪽에는 상창리가 위치해 있다. 감산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상창중로**는 상창리의 발들을 지나 중산간서로와 이어진다. 상창리는 예전에 옷창고내라고 불리며 창천리와 한 마을을 이루다가 상창천리로 분리되었고 이후 상창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성구뭇이 있다. 연뭇의 형태가 거북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옷성구뭇, 동성구뭇, 서성구뭇 이렇게 세 개의 연뭇으로 되어 있다. 이 연뭇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물로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상창리의 북쪽에는 옛날 공동목장에 쌓았던 잣성의 흔적이 있다. 조선시대 제주에 있던 10개의 국영목장 중에 7소장에 해당되었던 이곳은 상잣성과 하잣성을 쌓아 말들을 관리했다. 상잣성은 말들이 한라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고, 하잣성은 농사를 짓는 곳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농경지대와 경계를 구분하려고 쌓았다고 한다.

감산로/서안골로/서정문로 | 감산리

감산로는 감산마을을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이다. 감산리는 통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물동네라고도 불렸다. 감산리라는 이름은 조선 초부터 전해오는데 감굴이 재배되는 곳이라 해서 그렇게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감산리에 말발통이나 공마로같은 이름들이 전해오는 것을 보면 원나라가 제주를 지배했을 당시에 중산간의 목장에서 해안가로 말을 운반하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안덕계곡

감산리의 또 다른 길인 **서안골로**는 옛 지명인 서안골에서 따온 이름이다. 감산리에는 안으로 움푹 들어갔다고 해서 안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예전에는 물이 풍부해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서안골은 안골의 서쪽 지역을 부르는 말이다. 서안골로 인근에는 안덕계곡이 자리하고 있다. 안덕계곡은 먼 옛날에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면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7일 만에 큰 산들이 솟아나 만들어졌다고 한다. 치안치덕한 곳이라 해서 안덕계곡이라 불렀다고 한다. 안덕계곡은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계곡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감산리와 화순리의 경계에 나 있는 **서정문로**는 이곳에 있었던 서정문에서 따온 이름이다. 4·3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무장대의 습격에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석성을 쌓고 교대로 보초를 섰다. 그리고 통나무로 동쪽과 서쪽에 문을 만들어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서쪽으로 나 있던 문이 서정문이다. 4·3사건이 진정된 후에 동정문과 서정문은 철거되었다. 석성을 쌓았던 돌들은 화순항의 방파제 공사에 사용되었거나 발담을 쌓는데 쓰였다고 전한다.

존제로/가가로 | 존좌동과 가가동

일주서로에서 상예2동 마을의 중심지를 지나는 길이 **존제로**이다. 이 길은 존잣벙디라고 하는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벙디는 제주어로 평평한 들판을 말하는데 이 일대가 평평한 지대로 되어 있어서 존잣벙디라고 불렸다. 이 주변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 형성되었고, 이 마을을 존좌동(尊坐洞)이라고 했다.

존제로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가가로**는 가가동의 명칭에서 따온 이름이다. **가가로** 인근에 있는 더테오름을 거북이 형상의 오름이 덧붙여 있다고 해서 더테오름이라고도 불렀고, 한자표기로 가가악(加加岳)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오름 주변에 생긴 마을을 더테오름마을 또는 가가악동이라 했다. 예전에 가가동 안에는 여러 작은 마을들이 있었지만 4·3사건 때 대부분이 소개되고 말았다고 한다.